

# 사회복지 주간 동향(23.6.5.~6.9.)

## 1. 용인시 정책 동향

###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고구마' 심기 행사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농동이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권영지) 위원들 및 각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320㎡ 규모의 관내 텃밭에 사랑의 고구마 심기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힘
  - 협의체는 22일 밭을 직접 갈고 비료를 뿌리며 파종하여 가꾼 고구마를 수확해 판매한 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지원할 예정
  - 권영지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한 각 단체 회원께 감사드린다"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는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서농동 맞춤형복지팀)

##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정의 달 맞이 행복나눔 프로젝트 진행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 및 청소년 20가구에 건강가득 꾸러미 전달 >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간편식과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힘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22일 지역 내 20가구에 각 5만원 상당의 과일과 간편식으로 구성된 음식을 전달하고 생활환경을 직접 살펴봄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옥배 위원장은 “건강가득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달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함
- 읍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마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하다”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모현읍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1인 가구에 '텃밭재배키트' 지원**

< 맞춤형 지원으로 정서 안정 지원 >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준상)가 저소득 1인 가구 20명에 텃밭재배키트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힘
  - 텃밭재배키트 지원은 최근 급증한 1인 가정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민·관이 협력 맞춤형 사업
    - 재배키트는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등으로 구성
  - 지원 가구에는 간호 공무원이 방문해 재배법과 함께 건강 상태 확인, 우울 척도 검사 등을 지원
    - 박준상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최근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돕겠다”고 밝힘
    - 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보정동 맞춤형복지팀)

####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성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한테이블과 ‘정(情)담은 한끼’ 반찬 지원 협약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북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희숙·민간위원장 이명희)가 관내 반찬가게 참한테이블(대표 김화정)과 ‘정(情)담은 한끼’ 반찬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 협의체는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한 달에 두 번 국과 밀반찬을 지원하는 ‘정(情)담은 한끼’ 사업을 지난 4월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진행
  - 협약을 통해 참한테이블은 협의체에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과 밀반찬을 제공하고, 배달로 확인되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즉시 공유하기로 함
    -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은 반찬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참한테이블이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성북동 맞춤형복지팀)

##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50가구에 식료품꾸러미 전달

< 민간주도 공동체 발굴 위기가구 가구 대상 >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저소득 50가구에 식료품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힘
  - 동백2동은 지난 23일 '촛춤발굴단'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들의 고립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동네 함께하는 날'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대화를 진행
- \* '우리동네 함께하는 날' 프로그램은 용인특례시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돼 매월 위기 가구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칼같이 등을 진행하면서 우울감 조사 등을 병행, 촛춤발굴단은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주도해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살피고 대상자들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동백2동의 지역복지 공동체임
  - 전달한 식료품 꾸러미는 햇반, 김, 즉석조리식품, 두유, 약과 등으로 구성, 이번 행사는 구성농협과 수지신협동백지점의 후원과 시 공모사업에산으로 마련함

- 박혜정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조리가 간단하고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로 구성되도록 노력했다”며 “받으신 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위기가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2동 맞춤형복지팀)

##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孝)드림 이미용봉사 나눔실천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孝)드림 이미용봉사' 지원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힘
  - '효(孝)드림 이미용 봉사'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첫날 봉사자로 나선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길자 부위원장은 중증 장애인 아들과 노모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나눔을 실천함
  - 임병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원삼면 맞춤형복지팀)

## 7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무료 이미용 서비스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은 상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춘근)가 24일 관내 어르신, 장애인 등 30명에게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5일 밝힘
    - 이미용 봉사는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협의체 최순순 위원 외 2명이 재능 나눔으로 지난 1월부터 5회째 시행
    - 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료로 이용 가능
    - 협의체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머리를 단장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갈동 맞춤형복지팀)

## 8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에 건강음료 지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주)가 취약계층 30가구에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면역+1!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26일 밝힘
    - 이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저소득 가정이나 홀로 어르신 등을 방문해 건강음료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
    - 방문에는 동 관계자들도 동행해 혈압이나 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상담 함
      - 이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소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 특화사업을 마련했다”며 “조금이나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 한 어르신은 “외출이 어려워 집에만 있으면 외로운데 이렇게 찾아와 음료를 주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 9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가 지난 25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의 도배 및 싱크대 교체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힘

- 이 사업은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이비디엠씨(주)(대표 신성범)와 연계해 혼자 사는 어르신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곽근배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했던 이웃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 10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기흥구에 이웃사랑 성금 등 기탁 이어져

< 대덕사 백미 10kg 300포 기탁...영덕2동에는 이웃사랑 성금 500만원 >

- \* 용인특례시 기흥구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및 쌀 기탁이 이어짐
  - 기흥구는 관내 하갈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대덕사에서 지난달 27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시행한 법요식을 통해 신도들이 절에 시주하는 백미 300포(10kg)를 기탁했다고 1일 밝힘, 대덕사는 매년 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성금과 백미를 기부해오고 있음
  - 이날 기탁한 쌀은 신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은 것, 대덕사는 2017년 기흥구와 ‘사랑의 쌀’ 후원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1회 100포씩 매년 3~4차례 쌀을 기부
  - 대덕사는 지난달 27일 기흥구 영덕2동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
    - 영덕2동은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지원할 예정, 대덕사 탄우 주지스님은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대덕사 주지 탄우 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홀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쌀과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함
  - 상갈동에는 지난달 26일 지곡동 기흥지구촌교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 성금은 교회 성도들이 모은 현금으로 상갈동은 저소득층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할 예정
    - 안용호 기흥지구촌교회 목사는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는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힘
  - 기흥지구촌 교회는 지난달 26일 보라동에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 기탁
  - 보라동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열린 한보라마을 에듀포레 플리마켓 수익금으로 라면 280개(20만원 상당)를 구입해 23일 보라동에 전달
  - 보라동 그리니티 베이커리는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유기농 밀가루, 비정제설탕으로 만든 건강빵을 정기적으로 기탁하고 있음, 2주 동안 80만원 상당의 15종 150여개 빵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홀로 어르신,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에 지원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기흥구 사회복지과)

## II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에 한방 의료 지원

< 한의원과 협약 맺어 10가구에 가구당 20만원 상당 서비스 >



- \* 용인특례시 기흥구 구갈동은 구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은순, 공동위원장 송장석)가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가구당 20만원 상당의 한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힘
  - 이번 지원은 ‘한방에 건강회복’ 사업의 일환이다. 구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특화사업을 위해 관내 ‘다시, 봄 한의원’과 지난달 31일 협약을 맺음
  - 구갈동지역사회협의체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침, 뜸, 부항, 온열치료, 추나 치료, 한방약 등 맞춤형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우선 선정하여 필요한 한방서비스를 지원
  - 박은순 구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구갈동 취약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 맞춤형복지팀)

## 1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상갈동, 1일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



- \*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갈동이 지난 1일 관내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상담소를 운영했다고 2일 밝힘
  - 상갈동은 이날 맞춤형 건강상담소 ‘건강 에브리데이’를 통해 100여명에 서비스를 지원
  - 이날 건강상담소에는 올해 등에 배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간호직과 기흥구보건소 방문건강 및 치매 담당 직원이 참여
  - 건강상담소에서는 혈압·혈당 기초검사 진행 및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상담 및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인지선별검사 등 관련 상담을 진행
  - 동 맞춤형복지팀은 이번 건강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
  - 상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전 홍보 및 당일 안내를 지원
  - 동 관계자는 “건강상담소 운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 하겠다”며 “365일 건강한 상갈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특화사업을 구상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상갈동 맞춤형복지팀)

### 1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孝)드림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5일 지역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孝)드림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
  - 선풍기와 여름용 이불로 구성된 '여름나기 물품'은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원삼로타리클럽이 후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이웃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
    - 원삼면 관계자는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함
- \* 원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효(孝)드림 빨래방', '효(孝)드림 사랑의 밑반찬 배달' 등의 특화사업을 진행 중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원삼면 맞춤형복지팀)

## 1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 어르신에 장수 사진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명규)가 홀로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장수 사진 촬영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힘
  - 김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시라는 의미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함
  - 한 어르신은 “만일을 대비해 사진을 찍어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정작 준비하지 못했지만 등에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 덕에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3동 맞춤형복지팀)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 중앙정부 복지현안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 가능,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
  -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 지원단가를 0.9~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3만 원으로 인상,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5만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
-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참조

## 2 중앙정부 복지현안

###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 약자를 위한 정책집중 등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제시 >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마련 >

< 민관 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 >

- \* 정부는 5월 31일(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
- \*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며, 그 핵심과제로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이 함께 논의
  - 사회보장 전략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안건 1. 정부 복지국가 전략

- \*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한편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 실현을 위한 서비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 제고 하고 제도를 효율화하는 과제들이 추진
  - 우선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 구체적 과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마련, ▲사회보장제도 내실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격차 완화,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추진
  - 또한, 돌봄, 안전, 고용, 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도 충실히 지원하여 생애주기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이를 위해 ▲민·관협력 기반 사회서비스 고도화, ▲건강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
  - 복지 재정 혁신을 통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세대 간 공정과 제도의 효율성 도모, 세부과제로는 ▲건강보험·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

- \* 정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하여 「제3차(’24~’28)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

**안건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

-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는 우선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와 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중앙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크게 ▲대상별·분야별 제도 관리, ▲전달체계 및 국민안내 개선, ▲제도 상시관리 체계 강화로 구분
    - 첫째,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중인 제도를 국민편의 관점에서 패키지와함과 동시에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가령,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하여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임, 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
    - 둘째, 각종 전달체계 및 상담·안내 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 별도 프로세스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 및 각종 학대(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응체계를 연계하여 대상자 지원의 누락을 방지하고, 제도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 제도 상담·안내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 전화(120) 및 대표 홈페이지(복지로)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복지전화 및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안내의 중심축으로 운영
    - 셋째, 일회성 제도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통합관리 기반이 공고화 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 등 제도 관리체계를 강화
- \*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협의 사업에 대한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 등 사전협의 제도운동을 내실화, 또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 각종 통계·데이터 산출기반을 확충하고, 평가단위 및 지표 개선 등 사후분석 평가체계를 강화, 이러한 객관적 근거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분석 하고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관리

**안건 3.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 \*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

❖ 사회서비스란? :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  
 ○ (개념) 사회(social) + 서비스(service)  
 └ 무형(無形)의 용역·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현금X, 물품X)  
 └ 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 조성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품질관리, 재원 마련 등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 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
  - ▲대상자 확대를 위해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가능, 또한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등 新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신규서비스를 확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도 이용 허용\_23년 일부 지역 시범적용)
  - ▲고품질 서비스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
  -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강화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원리 도입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도 마련, 또한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 사회서비스 R&D,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법조직 기반도 정비
-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agenda) 중 하나,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함, 먼저 보건복지부는 돌봄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국민 중심 돌봄 체계란,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함
- 첫째,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필요 중장년 대상 일상 돌봄서비스를 시작, 그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청년·중장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앞으로는 청년·중장년도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해 이용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둘째,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추진,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이나 보호자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신속하게 일시적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또한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27년 6만명)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3년, 34개소)도 시행

- 셋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환자 등 중점돌봄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확인뿐만 아니라 가사·식사·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한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23년, 50개)과 정해진 급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시범사업, 24년~)
- 넷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평가를 강화, 지역사회 바우처 분야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범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은 부실기관 퇴출 등을 위해 지정 갱신 심사(25년~)를 추진
-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봄학교의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함, 고용노동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통한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복지주택을 통한 주거, 복지, 보건 융합서비스 제공방안과 교통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강화 방안도 제안함

※ 보도자료 참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총괄과)

### 3 중앙정부 복지현안

####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 ▲취약계층 대상별 촘촘한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시설 점검 등을 중점 추진 >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3.4만 명)가 취약노인 50만 명의 안전을 직접 확인(유선 또는 대면방문) 할 계획,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7만 가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로 폭염 정보도 제공받을 예정
- 취약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 한편 어린이집 1.2만 개소 대상 급식·위생 점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으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
-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하여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과 쪽방촌 위험물 제거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18개 기관·39종 정보)에 기반하여,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집중 발굴할 계획

·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2만 개소 대상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재난대응 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 중앙정부 복지현안

###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 복지정책 기초 공유를 위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 개최 >

< 윤석열 정부의 서비스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

- 이번 간담회는 5월 31일(수)에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사회보장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지역과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

-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사회서비스의 질(質)을 높이고 양(量)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공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품질 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간이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계획

- 특히,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사업인 가족돌봄 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에 대한 신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협조를 요청, 이 외에도 지난 5월 18일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주요 정책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

·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에게 재가 가사·돌봄, 심리지원, 병원 동행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6월 중 별도 발표 예정

※ 보도자료 참조(사회서 | 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5 중앙정부 복지현안

### 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

<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

- \*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 \*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
  -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 보도자료 참조(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6 중앙정부 복지현안

### 자살유발정보 차단,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함께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6.5.~6.16.) >

<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 >

- \*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힘(자살유발정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시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
- 최근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가 증가추세이며, 자살유발정보는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 등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수('18~'22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구분	정보 유형	신고건수(건)				
		2018	2019	2020	2021	2022
1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16,835	17,994	42,850	71,971	126,742
2	기타 자살유발정보	5,504	6,770	8,889	14,189	41,153
3	자살동반자 모집	3,727	4,478	19,424	3,920	18,889
4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503	2,707	17,540	50,430	41,210
5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4,823	639	2,069	2,215	6,070
계		32,392	32,588	90,772	142,725	234,064

- \* 보건복지부 자살유발정보 점검단 ‘지켜줍인(人)’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나, 집중클리닝 기간 동안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 차단에 동참 가능, 집중클리닝 활동은 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2015년부터 추진
-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https://sims.kfsp.or.kr>)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는 온라인상 게시된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삭제,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과 협력
- 활동 종료 후 활동 우수자(5인) 및 수기 공모전 우수작(4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여
- 보건복지부는 향후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까지 즉각 대응할 계획

※ 보도자료 참조(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 3. 통계로 보는 복지

## 1 중앙 통계현안

###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



※ 자료 : 통계청 자료(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